

The Study of Color Images in the Eastern and the Western Culture

- A Comparison between Early 20th Century Clothes and the Reinterpretation in Modern Cinema Costumes -

Ro, Juhyun · Yun, Jiyoung* · Choo, Ho-Jung⁺

Seoul National University · Seoul National University* · Hanyang University⁺

This Study is about the color images of clothes in the early 20th century in the Eastern and Western culture and the recreation of this color images through modern costume design in cinema. The aim of this study is to show how early 20th century color has been reinterpreted through present day cinema costumes and how different cultural perspectives can influence color images. The first phase in researching was to analyze the color trends in representative clothes from both cultures and categorize the character of these colors. The second step was to compare the color distribution in movie costumes featured in films from both cultures about the early 20th century that were made after 1990. By examining both the common elements and differences, it is possible to present data showing color preferences, representative color and purpose of color revival according to the culture.

For the purposes of this study fifty pictures of clothing, representative of the early 20th century, as well as films which have been internationally recognized for their costume design and strong cultural identity(including 'Farewell My Concubine', 'Raise the Red Lantern', 'Chicago' and 'The English Patient') were chosen and analyzed. The color image of these photographs and scenes from the films were divided by Pantone Solid Chips (for objectivity and ease of reference) and categorized by color groups such as red, orange, yellow, green, blue, violet and neutral.

The analysis results showed that the red group was used a lot in both cultures-orangish red, dark red and grayish pink being used the most. The orange group was more often used in the West, especially nude tone which was used more frequently. In regards to the yellow group, goldish, pale yellow and beige were commonly used in the West but dark yellow, which has a khaki tone was preferred in the East. The Blue group appears very frequently with white or black tonal saturation. In the case of the neutral group, the East used warm gray but the West used cool gray. Also, there were differences in color combination, texture and technique which demonstrates different cultural color recognition and association.

In the case of cinema color image, present color image was added to past color image. In the West, color was used as a tool for visualizing the state of a characters mind and the mood of a movies story but in the East color image was intended to make the character stand out by changing the value and chroma. By comparing the color image of clothes from the early 20th century and color image from cinema in the West and the East, it is possible to analyze the cultural symbolic image of color. This study is one of first trials to analyze the cultural differences in color images and their symbolic meaning. Thus, further studies should pursue to find out the influence of culture on the color image in terms of specific quantity and quality.

20세기 전반 동·서양의 시대색에 관한 비교 연구

- 시대 복식과 현대 영화 의상에서의 재현·비교를 통해 -

노주현 · 윤지영* · 추호정⁺

서울대학교 · 서울대학교 · 한양대학교

본 연구는 20세기 전반기 복식에 실질적으로 사용되었던 동서양 색채와, 현대 영화를 통해 재현되고 있는 색채이미지를 비교해 시대색이 현대 영화매체를 통해 어떻게 재현되고 있는가를 살펴봄으로써 문화적 색감을 도출해 내는 데 의의를 둔다. 이를 위해, 먼저, 20세기 전반기 동서양의 대표적 복식에 나타난 색채를 분석해 시대색을 규명하고 동서양의 색채 사용을 비교한 다음, 1990년대 이후 현대 영화에서 시대색이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문화별로 고찰하였다. 시대색 분석을 통해 도출된 동, 서양의 공유성과 특이성을 바탕으로, 현대 영화에서의 색 재현을 분석함으로써, 시, 공간의 문화별 색채선호도와 색채의 재현 및 동서양 대표적 색상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첫째, 각 문화별 대표성과 자료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복식사진 각각 50여 장품을 대상으로 하였고, 둘째, 영화제를 통해 문화별 정체성을 대표할 수 있고, 국제적 인지도를 가진 작품을 선정한 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동양을 대표하는 영화로는 패왕별희(Farewell My Concubine), 홍등(Raise the Red Lantern)을, 서양의 경우는 시카고(Chicago), 잉글리쉬 페이스먼트(The English Patient)를 선정하였다. 색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는 분석의 일관성을 위해, 컬러사진과 영화 캡처 이미지를 팬톤 컬러(Pantone Solid Chips)를 통해 추출해 내고 이를 각 칼라 군(레드, 오렌지, 옐로우, 그린, 블루, 바이올렛, 뉴트럴)으로 분류해 비교하였다.

20세기 전반 동서양 색채를 비교해 본 결과 모두 레드 계열의 사용이 많았으며 공통으로 오렌지기가 도는 레드와, 다크한 레드, 그레이쉬 핑크가 사용되고 있었다. 오렌지 계열의 경우, 서양이 동양보다 월등하게 많이 사용하고 있었으며 누드 톤의 색은 공통으로 사용하였다. 옐로우의 경우, 골

드색이 가미되거나 페일한 컬러가 공통적이며, 동양은 카키톤의 다크 옐로우를 사용하였다. 블루 계열의 경우, 레드 계열 다음으로 빈도수가 높은 군이며, 화이트나 블랙이 가미된 색이 많았다. 바이올렛 계열의 경우 동양에서는 퍼플 계열에 가까운 색을 사용하였다. 뉴트럴의 경우, 동양에서는 따뜻한 계열이, 서양의 경우는 차가운 계열의 그레이가 사용되고 있었다. 또한 색의 사용에 있어서는 유사하더라도, 배색에 있어서의 색 활용도나 소재나 기법의 차이가 다름으로 인해 각각의 색 느낌이 다름을 알 수 있었다.

영화에서의 문화별 색채 이미지는, 시대색에 현대적인 색감이 추가되었으며, 시각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색감이 사용되었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그러나 서양의 경우 20세기 전반 시대색의 재현보다는, 영화의 특성과 등장인물의 성격에 따라 색채 이미지를 결정하는 것이 더 두드러지는 반면, 동양에서는 시대색감을 계획적으로 재구성하려는 의도가 더 드러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현재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동양적인 레드나 블루의 색감은 시대색에서 도출된 색감보다는, 영화 색에서의 색감에 더 가까움을 알 수 있었다. 등장인물의 성격을 보강하기 위해 충실히 재현된 색채도 명도의 변화를 주어 분명한 차이를 드러나게 하는 것 또한 특징적이었다.

이와 같이 동서양의 시대색의 사용과 영화의상에서 관찰되는 색의 재현에 있어서의 공유점과 차이점을 통해 문화별 색감을 비교분석하였다. 본 연구와 함께 추후 색 사용의 문화별 상징적 의미에 대한 분석을 통해, 현대적 시각에서의 색채 이미지의 인식과 재창조, 시대색의 대중적 인지에 대한 심도 있는 질적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